

존엄높은 어머니조국이 있어 총련은 강하다

오는 5월 25일은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해외교포조직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결성된 때로부터 68돌이 되는 날이다.

뜻깊은 이날에 즈음하여 공화국인민들은 절세위인들의 열화같은 민음과 숭고한 동포애, 재일동포들의 고결한 애국정신으로 수놓아진 총련의 자랑스러운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위대한 태양의 빛바람과 변함없는 신념과 의지를 안고 조국을 옹호하고 조직을 사수하며 애국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내고 있다.

예로부터 해외동포들은 민족이라는 대하에서 뛰어나온 물방울에 비유되었고 그들의 역사는 레 없이 수난의 력사로 불리워왔다.

사료해보면 우리 민족의 불행에 찬 해외류방의 력사는 일제의 조선침략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불우한 행렬 가운데서 최악의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름아닌 재일조선동포들이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날조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의 수는 수백명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1945년 일제패망당시에는 그 수가 무려 240만명에 달하였다. 그 절대다수가 일제의 총칼에 떠밀리워 강제로 바다 건너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었다.

말 그대로 얼음판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차디찬 지역의 대지에 뿌려졌던 재일동포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의 가장 비참한 수난자들이었다.

이런 그들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해주심으로 비로소 《나는 조선사람이다》고 뱃뱃이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살며 일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재일조선인운동을 현명하게 이끌고오며 위대한 태양의 빛바람과 변함없는 신념과 의지를 안고 조국을 옹호하고 조직을 사수하며 애국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내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해외교포 운동은 비록 이국땅에서 진행되지만 어디까지나 주체적립장에서 자기 나라 혁명에 참가해 이바지하는 민족적 애국운동으로 되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로선전환방침이 제시되게 되었다. 이것은 동포들의 머리에 울려 퍼졌던 절망의 질곡을 구름장을 뚫고 비쳐든 은혜로운 소생의 빛바람이었다.

1955년 5월 25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결성됨으로써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의 시원이 열리게 되었으며 이때로부터 재일조선인운동은 주체의 궤도를 힘차게 달리게 되었다. 진정한 어머니조국과 운명의 피줄을 맺은 이 력사의 날이 있어 애국애족의 선각자, 애국총련의 모범,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자랑높은 총련의 어제와 오늘, 래일이 즐거우게 흐르게 되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는 드디어 해살도 한 겹 눈부시며 신록이 출추는 5월 25일 름름히 새 출발을 했다. ...이것은 오로지



영명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신 우리들만이 능히 달성할 수 있는 자랑이며 또 하나의 승리이다. ...우리는 이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주목했는가! 또한 이 력사적인 전환을 저어하려고 내외의 적들의 음모와 도발책동은 얼마나 후심했는가! 재일 60만은 그를 물리치고 기어이 승리하고야 만 것이다》

당시 《해방신문》에 대해 특별필되었던 이 기사에는 공화국의 기치아래 보람찬 애국투쟁의 길에 나서게 된 재일동포들의 격동과 환희가 그대로 담겨있었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 밑에 존엄높은 자주의 나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치는 공화국은 재일동포들이 바라는 찬이역땅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애국위업의 한걸음도 굽지 않아서 신념과 투쟁의 활력소였다. 총련은 동포들의 권리와 리

의 철철한 대변자, 결결한 옹호자로서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부리중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특히 민족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고 애국위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수많은 인재들을 훌륭히 키워냈으며 주체성과 민족성이 흘러넘치는 동포사회를 꾸려놓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꽃피워왔다.

세계에는 수많은 해외교포들이 살고있고 저마다 자기 조국을 두고 활동하고있지만 총련과 같이 자기 수령, 자기 조국, 자기 민족에게 충실한 그런 참다운 해외교포 조직은 없단다.

오늘도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교락을 함께 나누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불타는 애국지성을 바치고있다.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단결되고 광범한 동포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았으며 애국애족의 계주봉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는 여기에 총련의 자랑스러운 참모습이 있다. 자주로 존엄높고 강대한 어머니조국이 있어 총련은 강하고 재일동포들의 삶도 빛나고있다.

대를 이어 절세위인들을 모시고 공화국을 쫓아 휘날리며 역세게 나아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총련은 동포들의 권리와 리

의 철철한 대변자, 결결한 옹호자로서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부리중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특히 민족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고 애국위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수많은 인재들을 훌륭히 키워냈으며 주체성과 민족성이 흘러넘치는 동포사회를 꾸려놓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꽃피워왔다.

세계에는 수많은 해외교포들이 살고있고 저마다 자기 조국을 두고 활동하고있지만 총련과 같이 자기 수령, 자기 조국, 자기 민족에게 충실한 그런 참다운 해외교포 조직은 없단다. 오늘도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교락을 함께 나누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불타는 애국지성을 바치고있다.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단결되고 광범한 동포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았으며 애국애족의 계주봉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는 여기에 총련의 자랑스러운 참모습이 있다. 자주로 존엄높고 강대한 어머니조국이 있어 총련은 강하고 재일동포들의 삶도 빛나고있다. 대를 이어 절세위인들을 모시고 공화국을 쫓아 휘날리며 역세게 나아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총련은 동포들의 권리와 리

뜨거운 정이 넘치는 동포사회

동포들이 사는 방방곡곡에서 화목과 단합, 애국애족의 열기가 끊임없이 고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간곡한 말씀을 명심하고 총련의 각급 조직들이 동포사회에 뜨거운 혈연의 정이 넘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 나가고있다.

재능의 싹을 자래워주며

최근년간 재일본조선문화예술가동맹(문예동) 히로시마지부에서는 학생시절 예술적기량을 쌓은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재능을 더욱 꽃피워주고 동포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민족문화마당을 더 많이 마련하는 사업을 잘해왔다. 그 결과 동맹멤버가 확대되고 문예소조들의 운영이 활성화되게 되었다. 중요한 성과는 학생들을 위한 무용연구소를 새로 내은 것이다.

학생들이 무척 좋아한다. 그들은 과외시간을 리용하여 아름답고 우아한 우리 민족무용을 마음껏 배우고있다.

얼마전 지부가 주최한 무용연구소의 첫 발표모임이 총련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총련 히로시마조선가무단 성원들이 찬조출연하였다. 《장교와 방울》, 《우리 장단이 좋아》를 비롯한 다채로운 무용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공연마지막에는 연구소에서 배우는 전체 학생들이 출연하는 군무 《부림없어라》가 펼쳐졌다. 출연자들은 자기들의 예술적재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절찬의 박수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마음에 한걸 구김살도 없이 무력무력 자라며 재능을 꽃피워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는 지부성원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화목한 동포사회

얼마전 총련 아미가사끼조선초중급학교 운동장에서서는 요고현 니시노미야지역 동포들의 련환모임이 진행되었다.

니시노미야지역 청상회가 발기하고 총련지부와 녀성동맹, 조정조직이 적극 협조하여 마련된 행사였다. 사람이 오가고 정이 통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그 기쁨은 실로 한량없었다.

각계각층 동포들은 다채로운 유희오락경기를 진행하고 흥겨운 노래춤무대도 펼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었다.

동포사회에 흘러넘치는 아름답고 고상한 인문도덕과 후더운 정을 보여주는 광경이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살리며 동포들사이의 화목과 단합을 강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이 지역 동포사회에는 이처럼 아름답고 건전한 민족문화정서가 차넘치게 되었다.

본사기자



광주항쟁렬사들의 념원은 실현되지 않았다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가 있는 때로부터 43년이 흘렀다.

광주인민봉기는 자주와 민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항쟁이었다.

1979년 《유신》독재자가 비참한 종말을 고향 이후 남조선인민들은 《비상계엄령》의 해제 등 민주주의실현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그러나 외세의 막후조종 밑에 《12.12수군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군사파쇼당도는 남조선인민들의 높아가는 민주화열망을 총칼로 짓누르며 사회전반에 무시무시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군사파쇼당도는 모든 집회와 일체 정치활동의 금지, 모든 대학들의 폐쇄, 출판보도물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열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조치-10》호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5월 17일 밤과 18일 새벽 수많은 진보적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주인사들이

을 체포하였다. 5.17파쇼폭거는 남조선에서 새로운 독재통치의 서막을 알리는 일대 파쇼광란이었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지향에 5.17파쇼폭거로 도전해나선 군사장관들의 망동에 격분한 광주와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은 1980년 5월 18일 대중적인 봉기를 일으켰다.

봉기자들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 《유신체제를 철폐하라》, 《민주정부수립》, 《양키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증무장한 《계엄군》과 맞서 과감한 투쟁을 벌여왔다.

파쇼당당이 공경부대를 비롯한 정규군부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자 무기를 습격하고 각종 무기를 빼앗아 무장한 봉기자들은 도청, 경찰국을 비롯한 지방통치기관들과 주요공공기관들을 점거하면서 봉기를 확대해나갔다.

도시가 군사파쇼당도의 폭압부력에 의해 겹겹이 포위되고 무차별적인 공세가 끊

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봉기자들은 굴함없이 싸워 10일동안이나 도시를 사수하였다.

당시 광주인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하여 군사파쇼당당이 감행한 치명적인 살인만행은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무도한 것이었다.

살인귀들은 곧바로 봉기자들의 머리를 마구 내리치고 입신부의 배를 갈라 태어를 끄집어내어 내동댕이쳤으며 쓰러진 시민들을 집적 끌며 거리마다로로 질질 끌고 갔다. 지어 평화적군중을 향해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였던 직승기에서 기관총사격을 가하는 친인공노할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로 하여 인민의 합성드높은 광주를 삼시에 인민들이 흘리는 피로 물들게 되었다.

당시 세계의 언론들은 광주를 《피의 목욕탕》, 《망명민이 배회하는 도시》로 묘사하며 군사파쇼당도의 야수적인 살인행위를 폭로규탄하였다.

식민지파쇼통치를 밑뿌리째 뒤흔들어놓은 광주인민봉기는 불이 꺼지지 않고 겹겹히 맞서싸우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굳센 기상을 시위하고 남조선인민운동을 더욱 즐거우게 떠밀어 주는 기록제로 되었다.

광주인민봉기는 그 후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지고 새 세기에 들어와 두너중학생을 장갑차로 깔아죽인 미군의 만행에 본격하여

타오른 대중적인 반미초불시위로 발전하였으며 수년전에는 남조선 전지역적인 대중적초불항쟁으로 번져져 박근혜독재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아직도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광주봉기자들의 소원과 남조선 각계층의 념원이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사대매국 파쇼독재, 반공화국대결의 수적스러운 력사가 계속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지배와 경제적속책등을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감행하면서 남조선에 반공화국대결광풍이 세계 패아망실현을 위한 핵전초기지, 핵약약고로 더욱 전락시키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 대조선대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외세의 각급 부친전쟁연습들을 매일 같이 벌여놓으면서 민족의 머리에 해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얼마전에도 역적패당은 미국을 행각하여 공화국을 겨는 《화강역적력》의 실행력체고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위싱턴선언》과 남조선미국 일본 《3자협력력화》 등을 노린 《공동성명》이라는것을 조작발표하여 조선반도의 핵전쟁위험을 최대로 증대시키고 남조선을 미국의 영한속지로 삼겨버렸다.

이러한 친미대국배행위도 성차지 않아 윤석열역도 는 과거문제에 대한 립골

만한 사죄도, 반성도 하지 않는 친년속적과 입을 맞추는 친인공노할 반역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일본에 대한 친일골종행각을 단행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리의를 팔아먹다 못해 왜나라수상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러오는 과거죄악을 덮어주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력강화를 모의하면서 제침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주는 엄청난 대국배행위를 한 역적패당의 죄악은 지금 은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집권 1년간에 남조선을 슬금슬금 걸찰과쇼암흑지대로 만들어놓고 친재미대결광풍과 반로동, 반인민적약정으로 근로대중의 삶을 짓밟고있으며 초보적인 생존전보장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을 《불법》, 《폭력》으로 몰아 가져왔던 탄압하는 등 파쇼살인기질을 날 날이 드러내고있다.

현실은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자유와 민주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을 《독도》로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살할 한 전두환군사파쇼당도 무색케 할 친미친일역적들이며 반공화국대결광풍이며 극악무도한 파쇼광신자들과는 다를 바 없다.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는 결코 지나간 력사속의 항쟁이 아니다.

그 자랑스러운 투쟁은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의 반외세자주화와 반파쇼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남

《5월 정신 잊지 말자》

얼마전 남조선의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와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의 주최로 광주에서 《5.18민중항쟁정신계승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로동자, 청년, 일반시민을 비롯한 각계층 2000여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먼저 참가자들의 발언이 있었다.

5.18광주인민봉기당시 광주시민과 시민에게 주먹밥을 만들어주었던 한 시민은 《당시 죽어나가는 시민들을 위해 할수 있는것이냐고 는 주먹밥을 싸서 전하는것뿐이었다. 겁도 나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였다》, 《그러나 주먹

밥을 싸서 나누던 당시보다 오늘날이 더욱 각박한 세상 이 되고말았다》라고 주장하였다.

《5.18정신은 빈부격차와 랑국화,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기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6.15공동선언실현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상임대표는 《아직도 5.18을 외국하는 선택이 있다. 윤석열(정권)은 광주를 분열시켜 민주화요구를 짓밟고 있다》고 하면서 《외국과

분렬을 뚫고 5.18에서 통일로 이어지는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출정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5.18광주인민봉기의 정신을 계승해나갈 결의들을 다지었다.

본사기자



《미군사격장공사 당장 중단하고 폐쇄하라》

얼마전 남조선의 《민주로총》 경남분부와 《마장진환경운동원련합》, 《정의당》을 비롯한 18개 시민단체, 정당들이 광라된 《주(한)미군전용사격장건설중단 및 폐쇄창린대책위원회》가 창립시청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립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용사격장공사를 중단하고 폐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들은 기자회견에서 《미군전용사격장중단에 대우를 아바트들과 상결, 버스정류소 등이 있다》, 《사격장건설로 주민들이 언제 총란이 날아올지 모를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사격장의 면적과 사격훈련의 빈도도 알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금은 저격무기사격장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다른 용도의 군사시설로 바뀌어도 《SOFA협정》을 내세우면 아무것도 알수 없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데도 사업내용을 알수 없다는 시장국의 처사에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이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있는 당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들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사격장공사를 중단하고 폐쇄하라》고 당국에 적극적인 대책을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